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consciousness 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Korean Medical Students

Eunbae B. Yang¹, Wootack Jeon¹ and Sook-hee Ryue²

¹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and ²Brain Korea 21 Project for Yonsei Med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의과대학생의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

¹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²두뇌한국21 연세의과학사업단

양은배¹, 전우택¹, 류숙희²

Purpose: In Korea, students should have the consciousness of 'I' and 'we' to adapt well in society. Medical students in Korea must develop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Korean culture. This study intend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medical students.

Methods: The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Inventory and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were used for 212 first year medical students and 191 second year medical students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2008.

Results: The levels of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medical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general college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for 118 of 130 factors. The higher the level of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in medical students is, the fewer interpersonal problems there are.

Conclusion: Educational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onsciousness of 'I' and 'we' ar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students' personalities.

Key Words: Consciousness, Interpersonal relations,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서론

환자 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의사의 대인관계 능력이다[1]. 대인관계 능

력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 적응과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측면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2].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과대학 재학 및 졸업 후에 지속적으로 다양

Received: January 29, 2010 • Revised: March 16, 2010 • Accepted: March 17, 2010

Corresponding Author: Sook-hee Ryue

Brain Korea 21 Project for Yonsei Med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50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02-2228-2513 FAX) 02-364-5450 E-mail) ryueedu@yuhs.ac

Korean J Med Educ 2010 Jun; 22(2): 141-148.

doi: 10.3946/kjme.2010.22.2.141.

pISSN: 2005-727X eISSN: 2005-7288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한 유형의 사회 구성원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한다. 둘째, 의과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 및 동료 의사들과 효과적인 관계지음을 해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에서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이후 더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겪게 되고, 이는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

대인관계 능력은 자기이해, 타인이해, 공감적 이해,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을 기본요소로 한다[4]. Guisinger & Blatt는 대인관계 능력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이나 관계성과 함께 발달되는 상호촉진적인 관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5].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대인관계 능력과 개인의 정체감 및 공동체 의식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6]. 따라서 바람직한 대인관계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능력의 효과적인 함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기술 자체를 가르쳐주는 것에 앞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의식과 우리에게 대한 의식 수준을 먼저 높여야 한다. 의식 수준의 변화는 대인관계 기술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Cho [6]는 자기정체감 및 공동체감을 나의식-우리의식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하여 한국사회에 알맞은 개념으로 변화시킨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의식'이란 자기 자신을 욕구와 특정 관점을 가진 독특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과 다르다. 나의식은 자신을 독특한 개체로 인정하는 고유성, 목표를 정해놓고 성취하려는 성취지향성,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성,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관계성, 자기중심성과 이기적 성향이 얼마나 적은가를 나타내는 자기우월성 낮음을 하위 속성으로 갖는다. '우리의식'이란 우리에게 대한 강한 느낌을 갖는 경향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성, 친구를 사귀고 정을 나누는 것을 중시하는 상호친밀성,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상대배려성,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일체감,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에게 대한 회의성이 포함된다. 나의식-우리의식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의식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이 '나와 우리'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한다[6].

지금까지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은 환자 및 동료 등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술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대인관계의 근원을 이루는 나의식-우리의식에 관련된 탐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 특성과 다른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일부 연구들이 발표되기는 했으나[7,8,9], 의과대학 학생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나의식과 우리의식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준이 대인관계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사립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및 2학년 재학생 2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집단에게 나의식-우리의식 검사와 대인관계문제검사를 2008년 5월 26일~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12명(81.5%)의 학생이 응답하였다(1학년 114명, 2학년 98명; 남자 160명, 여자 52명).

나의식-우리의식 검사(I consciousness-We consciousness test)는 조운경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6], 대인관계문제 검사는 Horowitz의 대인관계원형척도[10]와 Leary의 성격문제척도[11]를 기초로 김영환 등이 개발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사용하였다[12]. 이 검사는 Horowitz et al.이 Leary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최신 이론들을 접목하여 개발한 검사지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밝히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식-우리의식 검사는 나의식 부분을 측정하는 44문항과 우리의식을 측정하는 4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11개 대학 851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일관성계수는 하위영역별로 0.72~0.85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나의식-우리의식 검사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0.71~0.90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대인관계문제 검사는 대인관계문제 부분을 측정하는 80문항과 성격문제정도를 측정하는 4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대학생(n=1,460)과 성인(n=1,474) 표본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동 검사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0.69~0.93이며, 문항 간 상관평균이 0.24로 문항들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문제 검사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0.74~0.8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 대인관계문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나의식-우리의식 하위 속성별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고 이러한 수준이 학년별, 성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문제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검사의 하위 요인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문제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대인관계문제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증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SPSS WI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1. 나의식-우리의식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은 Table 1과 같다. 학생들의 나의식은 고유성(uniquness), 성취지향성(accomplish orientation), 관계성(relatedness)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낮은 자기 우월성(low self superiority;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마음이 편하다)에서는 2.90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우리의식은 일체감(unification), 상대배려성(partner care)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우리에게 대한 낮은 회의감(low we skepticism)은 2.86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집단별 차이분석에서는 대부분의 하위 영역이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우리의식의 관계지향성(relationship orientation) 영역에서는 학년 간, 성별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1학년보다 2학년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관계지향성의 수준이 더 높은 것

Table 1. Difference Analysis of I/We Consciousness by Grade and Gender

Domain of consciousness	No. of items	All (n=212)		Grade		Gender			
				1st (n=114)	2nd (n=98)	t	Male (n=160)	Female (n=52)	t
I	Uniqueness	7	4.36 (0.06)	4.30 (0.73)	4.43 (0.92)	-1.083	4.31 (0.85)	4.49 (0.73)	-1.326
	Accomplish orientation	7	4.23 (0.06)	4.20 (0.79)	4.27 (0.83)	-0.640	4.18 (0.80)	4.39 (0.82)	-1.508
	Self-receptivity	11	3.87 (0.07)	3.83 (0.91)	3.92 (0.91)	-0.620	3.83 (0.92)	3.97 (0.88)	-0.907
	Relatedness	10	4.10 (0.06)	4.02 (0.81)	4.20 (0.71)	-1.613	4.05 (0.73)	4.28 (0.86)	-1.809
	Low self-superiority	9	2.90 (0.07)	2.92 (0.84)	2.89 (0.79)	0.224	2.87 (0.85)	2.99 (0.72)	-0.867
We	Relationship orientation	10	3.90 (0.06)	3.79 (0.89)	4.04 (0.77)	-1.987*	3.81 (0.80)	4.17 (0.93)	-2.566*
	Inter-intimacy	10	3.44 (0.05)	4.22 (0.87)	4.39 (0.79)	-1.413	4.23 (0.83)	4.47 (0.86)	-1.719
	Partner care	7	4.01 (0.06)	3.94 (0.81)	4.10 (0.76)	-1.387	3.95 (0.82)	4.20 (0.68)	-1.841
	Unification	8	4.93 (0.08)	3.93 (0.86)	3.97 (0.85)	-0.314	3.87 (0.81)	4.15 (0.96)	-1.907
	Low 'we' skepticism	9	2.86 (0.07)	2.96 (0.92)	2.73 (0.92)	1.715	2.88 (0.91)	2.83 (0.96)	0.347

*p<0.05.

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문제 특성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Table 2와 같다.

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 특성은 평균 2.19~2.81로 낮았으며, 성격문제 특성 평균도 1.88~2.87로 낮았다. 특히 성격문제 특성 중 공격성(aggression)은 1.88로 매우 낮았다.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는 대인관계문제 특성의 냉담(cold)에서 1학년이 2

Table 2. Difference Analysis of Interpersonal Problem by Grade and Gender

Domain of IP and PP	No. of items	All (n=212)		Grade		t	Gender		t
				1st (n=114)	2nd (n=98)		Male (n=160)	Female (n=52)	
IP	Domineering	10	2.19 (0.60)	2.20 (0.62)	2.17 (0.60)	0.351	2.24 (0.61)	2.00 (0.54)	2.441*
	Vindictive	10	2.22 (0.50)	2.27 (0.52)	2.17 (0.47)	1.394	2.25 (0.50)	2.12 (0.44)	1.595
	Cold	10	2.45 (0.64)	2.54 (0.60)	2.33 (0.67)	2.365*	2.47 (0.62)	2.40 (0.67)	0.648
	Socially avoidant	10	2.49 (0.77)	2.58 (0.76)	2.38 (0.78)	1.788	2.53 (0.78)	2.40 (0.74)	1.005
	Nonassertive	10	2.65 (0.69)	2.73 (0.67)	2.56 (0.71)	1.705	2.64 (0.70)	2.70 (0.62)	-0.575
	Exploitable	10	2.75 (0.64)	2.81 (0.61)	2.67 (0.67)	1.504	2.71 (0.64)	2.90 (0.65)	-1.824
	Overly nurturant	10	2.81 (0.59)	2.86 (0.56)	2.76 (0.62)	1.112	2.80 (0.59)	2.88 (0.60)	-0.774
	Intrusive	10	2.60 (0.61)	2.60 (0.60)	2.60 (0.63)	0.089	2.63 (0.62)	2.55 (0.58)	0.735
PP	Interpersonal sensitivity	8	2.26 (0.54)	2.82 (0.72)	2.84 (0.62)	-0.243	2.83 (0.67)	2.90 (0.70)	-0.595
	Interpersonal ambivalence	11	2.62 (0.56)	2.42 (0.52)	2.34 (0.50)	1.103	2.41 (0.51)	2.31 (0.45)	1.120
	Aggression	9	1.88 (0.56)	2.07 (0.61)	2.10 (0.63)	-0.310	2.13 (0.62)	1.91 (0.55)	2.232*
	Need for social approval	7	2.01 (0.52)	3.03 (0.73)	2.89 (0.75)	1.358	2.96 (0.74)	3.06 (0.75)	-0.873
	Lack of sociability	12	2.87 (0.87)	2.47 (0.71)	2.31 (0.74)	1.417	2.41 (0.73)	2.34 (0.70)	0.800

IP: Interpersonal problem factor, PP: Personality problem factor.

*p<0.05.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 and I/We Consciousness

Domain of IP and PP	I consciousness					We consciousness					
	UNIQ	AO	SR	R	LSS	RO	II	PC	UNIF	LWS	
IP	Domineering	0.06	-0.09	-0.18*	-0.04	-0.42*	-0.12	-0.27*	-0.38*	-0.09	-0.16*
	Vindictive	-0.14	-0.38*	-0.45*	-0.24*	-0.39*	-0.41*	-0.54*	-0.49*	-0.39*	-0.43*
	Cold	-0.34*	-0.56*	-0.59*	-0.34*	-0.12	-0.55*	-0.61*	-0.37*	-0.49*	-0.41*
	Socially avoidant	-0.39*	-0.60*	-0.65*	-0.30*	-0.06	-0.49*	-0.56*	-0.22*	-0.43*	-0.39*
	Nonassertive	-0.51*	-0.45*	-0.60*	-0.03	-0.04	-0.19*	-0.38*	-0.02	-0.24*	-0.29*
	Exploitable	-0.39*	-0.35*	-0.47*	0.07	0.04	-0.07	-0.25*	0.15*	-0.13	-0.20*
	Overly nurturant	-0.26*	-0.19*	-0.32*	0.21*	-0.07	0.09	-0.14	0.28*	0.03	-0.13
	Intrusive	-0.05	-0.08	-0.17*	0.22*	-0.40*	0.11	-0.19*	0.00	0.07	-0.08
PP	Interpersonal sensitivity	-0.30*	-0.29*	-0.45*	0.10	-0.28*	-0.09	-0.32*	0.02	-0.11	-0.23*
	Interpersonal ambivalence	-0.15*	-0.34*	-0.45*	-0.25*	-0.37*	-0.44*	-0.50*	-0.51*	-0.48*	-0.42*
	Aggression	-0.12	-0.25*	-0.37*	-0.08	-0.39*	-0.19*	-0.38*	-0.24*	-0.14	-0.27*
	Need for social approval	-0.34*	-0.25*	-0.44*	0.19*	-0.10	0.01	-0.21*	0.11	-0.09	-0.15*
	Lack of sociability	-0.48*	-0.58*	-0.64*	-0.25*	-0.01	-0.42*	-0.52*	-0.19*	-0.38*	-0.35*

IP: Interpersonal problem factor, PP: Personality problem factor, UNIQ: Uniqueness, AO: Accomplish orientation, SR: Self receptivity, R: Relatedness, LSS: Low self superiority, RO: Relationship orientation, II: Inter intimacy, PC: Partner care, UNIF: Unification, LWS: Low we skepticism.

*p<0.05.

학년보다 더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지배(dominance)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통제지배 성향이 강하였다. 성격문제 특성에서는 학년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문제 특성의 관계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130개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118/130개(90.7%)의 조합이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나의식-우리의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도 적었다. 나의식의 자기수용성(self-receptivity)과 우리의식의 상호친밀성(inter intimacy)은 대

인관계문제 및 성격문제의 하위 속성과 전반적으로 높은 역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나의식의 성취지향성(accomplish orientation)은 대인관계문제의 냉담(cold), 사회적 회피 socially avoidant), 사회성 부족(lack of sociability)와 높은 역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의식의 하위 속성들은 자기중심성(vindictive), 냉담(cold), 사회적 회피 socially avoidant), 대인적 비수용성(interpersonal ambivalence)과 비교적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의식의 고유성(uniqueness)은 대인관계문제의 비주장성(nonassertive), 사회성 부족(lack of sociability)과 높은 역상관을 보였다.

Table 4. Groups according to I Consciousness/We Consciousness Level

Group	HH (n = 68)		HL (n = 23)		LH (n = 23)		LL (n = 64)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I-consciousness	4.37	0.32	4.13	0.20	3.62	0.19	3.44	0.27
We-consciousness	4.38	0.40	3.46	0.33	4.14	0.26	3.21	0.43

HH: I- and We-consciousness high, HL: I-consciousness high but We-consciousness low, LH: I-consciousness low but We-consciousness high, LL: I- and We-consciousness low, SD: standard deviation.

Table 5. Result of Variance Analysis of Interpersonal Problems by I- and We-Consciousness Groups

Group	HH	HL	LH	LL	F-value	Post hoc
Interpersonal problem						
Domineering	1.95 (0.59)	2.44 (0.62)	2.25 (0.61)	2.30 (0.52)	5.65*	LL>HH
Vindictive	1.86 (0.37)	2.33 (0.39)	2.24 (0.43)	2.54 (0.45)	27.28*	HL, LH, LL>HH ; LL>LH
Cold	1.98 (0.48)	2.45 (0.39)	2.42 (0.41)	2.87 (0.53)	33.09*	HL, LH, LL>HH ; LL>HL, LH
Socially avoidant	1.96 (0.61)	2.42 (0.49)	2.67 (0.56)	3.00 (0.72)	26.81*	HL, LH, LL>HH ; LL>HL
Nonassertive	2.30 (0.50)	2.45 (0.65)	2.85 (0.62)	3.00 (0.62)	15.61*	LH, LL>HH ; LL>HL
Exploitable	2.58 (0.56)	2.45 (0.60)	3.02 (0.69)	2.95 (0.62)	7.00*	LH, LL>HH ; LL, LH>HL
Over nurturant	2.74 (0.52)	2.66 (0.58)	3.10 (0.69)	2.89 (0.59)	2.92*	
Intrusive	2.49 (0.58)	2.51 (0.59)	2.89 (0.56)	2.66 (0.62)	2.75*	
Personality problem						
Interpersonal sensitivity	2.57 (0.59)	2.69 (0.70)	3.19 (0.69)	3.07 (0.61)	8.99*	LH, LL>HH
Interpersonal ambivalence	2.05 (0.47)	2.54 (0.32)	2.40 (0.44)	2.66 (0.42)	20.41*	HL, LH, LL>HH
Aggression	1.77 (0.56)	2.15 (0.56)	2.23 (0.64)	2.30 (0.51)	9.96*	LH, LL>HH
Need for social approval	2.77 (0.62)	2.74 (0.88)	3.36 (0.75)	3.17 (0.73)	6.01*	LH, LL>HH ; LH>HL
Lack of sociability	1.94 (0.54)	2.21 (0.49)	2.51 (0.50)	2.85 (0.68)	24.35*	LH, LL>HH ; LL>HL

HH: I- and We-consciousness high, HL: I-consciousness high but We-consciousness low, LH: I-consciousness low but We-consciousness high, LL: I- and We-consciousness low.

*p<0.05.

4. 나의식-우리의식 수준별 대인관계문제 특성

나의식-우리의식 수준별 대인관계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의식-우리의식 중앙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Table 4),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의 집단별 대인관계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나의식-우리의식 수준 집단별 차이에서 모든 대인관계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으로 회색된 자기순응성(over nurturant), 과관여(intrusive)를 제외하고 나의식-우리의식이 모두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인관계문제 특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냉담(cold), 사회적 회피(socially avoidant), 비주장성(nonassertive), 과수응성(exploitable), 사회적 인정 욕구(need for social approval) 영역에서는 나의식이 높고 우리의식이 낮은 학생들이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모두 낮은 학생 및 나의식이 낮고 우리의식이 높은 학생들보다 대인관계문제 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의식이 높고 나의식이 낮은 학생들은 자기중심성(vindictive), 냉담(cold) 영역에서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모두 낮은 학생들보다 대인관계문제 특성이 낮게 나타났다.

고찰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준이 대인관계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의 평균은 각각 3.90, 3.83이었고 나의식과 우리의식 수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11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의식이 나의식 수준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나의식에서는 고유성, 우리의식에서는 일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나의식의 고유성, 성취지향성과 관계성, 우리의식의 일체감, 상대배려성 등이 4점 이

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 [13]은 이러한 특성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타인지향적인 관점이 매우 중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이 일반 대학보다 더 성취지향적인 학습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자진료를 위한 동료 상호간의 관계성 및 일체감 등을 강조하는 의료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리의식의 관계지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학생들이 인간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학년이 1학년보다 관계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한 것은 의과대학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관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결과로 보인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 특성 중 자기희생, 비주장성, 과관여, 냉담이 다른 특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7년에 의과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6] 자기중심성, 사회적 회피, 통제지배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자기희생, 비주장성, 냉담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6]. 본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2.19~2.81로 매우 낮고, 하위 속성 간에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의 차이로 해석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대인관계문제 특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격문제 척도에서는 사회성부족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공격성이 1.88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공격성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성격문제 척도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1.88~2.87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성격문제 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90% 이상의 항목에서 역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하위 요소들은 높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이 대인관계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대인관계 관련된 문제 특성을 줄일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나의식의 자기수용성과 우리의식의 상호친밀성은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식의 성취지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냉담, 사회적 회피 및 사회성 결핍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조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취지향성이 강한 학생이 대인관계 문제특성과 유의미한 역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어[6], 성취지향성이 강할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식-우리의식이 모두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인관계문제 특성이 낮게 나타나고, 나의식이 높은 학생이 냉담, 사회적 회피, 비주장성, 과순응성, 사회적 인정 욕구의 대인관계문제가 더 많으며, 우리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중심성, 냉담 영역의 대인관계문제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의식-우리의식이 높을수록 환경에 더욱 적응적으로 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 해석된다[2,6].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함양을 위해서 나의식-우리의식의 강조는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은 높다. 특히 나의식의 고유성, 성취지향성, 관계성과 우리의식의 일체감, 상대배려성 등은 4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과대학 학생들의 나의식-우리의식의 하위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요소와 일반 대학 학생들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하위 요소에 대한 분석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의과대학 학생의 자기희생, 비주장성, 과관여 및 냉담과 같은 대인관계문제는 다른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대학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요인들이 다르게 도출된 점으로 보아 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나의식-우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낮다. 그러므로 의과대학 교육에서 대인관계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의 본질적 속성을 이루는 나의식-우리의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의식-우리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궁

극적으로 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양극에 있는 심리특성으로 생각되어 공통적으로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 두 부분은 서로 상관이 있으며, 이것은 대인관계 문제와도 역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더불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나의식-우리의식과 같이 의미 있는 구인을 포함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Rider EA, Keefer CH. Communication skills competencies: definitions and a teaching toolbox. *Med Educ* 2006; 40: 624-629.
2. Lee HL, Choi HJ. The effect of peer-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Korean J Youth Stud* 2003; 10: 291-308.
3. Kohn LT, Corrigan JM, Donaldson MS.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Washington, DC, USA: National Academy Press; 1999.
4. Kim KJ, Lee JH.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for the improvements of interpersonal relations of college students. *J Student Guidance* 1999; 17: 17-37.
5. Guisinger S, Blatt SJ.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 Psychol* 1994; 49: 104-111.
6. Cho YK. A study o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relationships betwee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social matu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3; 15: 91-109.
7. Kim EK, Yang EB, Kim SJ.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Korean J Med Educ* 2007; 19: 143-

- 151.
8. Lee YH, Lee YM, Kim B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communication skills and learning attitudes in pre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8; 20: 177-187.
 9. Moon SW, Nam BW, Seo JS, Ryu EJ, Kweon HJ, Sohn IK, Hahm W. Patient-centerednes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s of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6; 18: 77-86.
 10. Horowitz LM.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 a Leary Legacy. *J Pers Assess* 1996; 66: 283-300.
 11. Leary T.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USA: Ronald Press; 1957.
 12. Kim YJ, Jin YG, Cho YR, Gwon JH, Hong SH, Park EY.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eoul, Korea: Hakjisa; 2002.
 13. Choi SJ, Yoon HG, Han DW, Cho GH, Lee SW, Ryu MS. *Dongyang simnihak: seogu simnihage daehan mosaek*. Seoul, Korea: Jisik Sanup Publications Co. Ltd; 1999.